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 양상과 농촌개발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김수욱* · 이은환* · 박성래**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A Study on the chang of QOL of Rural People and Directions for Rural Developmnet

Kim, Su-Wook* · Lee, Eun-Hwan* · Park, Sung-Rae**

*Dept. Coll. of Edu., Kon-Kuk Univ., Seoul 143-701, Korea

**Dept. Coll. of Edu., Han-Yang Univ., Seoul 17, Korea

적 요

삶의 질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얻는 만족감 또는 행복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 노동, 교육, 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생활 수준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삶의 질은 사회 및 환경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사회계획과 정책방향 설정에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게 된다.

산업화 시대에 농촌은 도시에 비해 소득을 비롯하여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되었다. 이는 농촌을 떠나는 이농으로 이어져 각종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들은 임계인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감소하거나, 제기능을 못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지거나 정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농촌을 인간정주의 장으로 만들어 도·농간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농촌주민의 이러한 삶의 질 파악을 통해 적극적인 농촌개발 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촌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전통적 농업경영 외에 현금작물의 개발, 농외소득 증대와 같은 소득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의 교육 인프라의 유지 및 확충, 오지 학생들의 유학비 지원, 평생교육기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기관 및 인력의 확보, 환경오염 방지 시설 등 생활환경 여건의 개선과 함께 농촌이 전통문화 보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PC보급 지원, 정보화 교육의 지속적 실시, 기반구축 역시 필요하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60년 대까지 유엔 및 여러 국제기구나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인간의 생활수준 또는 행복한 삶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소득을 주요지표로 활용하면서 소득

으로 환산되는 생활수준 지표는 비단 개인 뿐 아니라 사회발전 정도나 문화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생활수준 및 인간의 삶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소득 이외에 계량화할 수 없는 인간생활의 많은 부분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1970년대 초반부터 서구 선진국에서는 생활수준이라는 용어 대신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사회지표를

개발하게 되었다.

사회지표가 인간의 삶의 질을 전부 반영하느냐 아니냐, 또는 사회지표의 항목들을 모두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사회지표가 인간의 총체적 삶의 내용과 그 내용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자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사회구조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관심이 지난 날의 물리적이고 양적 증가 위주의 사회적 관심에서 이제는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향상 뿐 아니라 개인생활, 가정생활, 정신문화, 교통·통신·환경·사회적 발전 등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그동안 경제개발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도시에 비해 교육시설, 교통·통신시설, 유통시설, 문화시설, 하부구조 등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농촌의 여건은 농촌주민의 이농과 이촌을 꾸준히 증가시켜 다시 산업부문간의 불균형 발전, 지역간의 불균형개발을 유발하는 악순환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되고 있는 농촌·농업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주민들이 농촌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농촌정책과 농업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농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굳건히 육성되어야 한다면, 농촌은 귀중한 국토자원으로 지켜져야 하며 농촌을 지키는 농촌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의 방향과 정책수단은 농촌주민의 정확한 삶의 질 조사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도·농간의 삶의 질을 비교·분석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농촌주민들의 삶을

질을 제고하기 위한 농촌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삶의 질의 개념과 측정방법에 대하여 고찰한다.
- ② 농촌과 도시의 삶의 질의 변화양상을 비교·분석한다.
- ③ 농촌주민의 객관적인 삶의 질을 평가한다.
- ④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농촌개발의 방향을 설정한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과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수집·활용함으로써 추진되었다. 특히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양상은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체계화된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 삶의 질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삶의 질의 개념

삶의 질이라는 뜻은 문자 그대로 인간생활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 즉 인간생활의 질적 수준과 인간 삶의 가치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질에 대해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이용하려는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정확한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삶의 질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그와 유사한 개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삶의 질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적 만족감(social satisfaction), 사회적 복리(social wellbeing), 생활수준(level of living)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윤중주 외, 1990).

우선 생활수준이란 복지의 사실적 상태 즉, 지역사회의 수요와 욕구의 실질적 만족상태를 의미하며, 생활의 기준이란 지역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였다. 한편, 경제적 복리라는 개념은

화폐를 통하여 구입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뜻함에 비하여 사회적 복지는 인간의 생활 또는 생존의 질적 측면에 기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사회적 만족감이라는 개념도 복지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망라한 의미이지만, 특히 객관적 현실여건에 대한 집합적인 심리반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삶의 질이란 개념도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건강, 교육, 후생, 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불완전한 공공재의 공급의 양과 분배의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1960년대까지는 준거의 개념으로 생활수준(level of living)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로는 점차 삶의 질의 개념이 중시되고 있다(하성재, 1993).

Liu Ben-Chieh는 삶의 질이란 두 가지 상이한 그러나 독립적인 물리적 투입요소와 심리적인 투입요소로 이루어진 어떤 생산변수의 산출이라 정의하고 있다. Wingo는 삶의 질이란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와 만족을 추구하는 사회적, 심리적, 환경의 질이라고 하며, Mark Schneider는 개인의 생활 만족도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도시의 물리적 상태와 무관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삶의 질이란 개인이나 사회조직이 경험하는 직접적 복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Hormack와 Shaw는 삶의 질을 정선된 인간집단에 적합한 객관적 조건과 이들 조건에 대한 개개인이 가지는 주관적인 상태의 변수관계라고 정의하고, Dalkey와 Rourke는 인간의 행복감, 생활에 대한 만족, 불만, 행복과 불행에 대한 감정을 의미한다고 한다(Liu Ben-Chieh, 1976).

현오석(1976)은 삶의 질을 정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삶의 질의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안녕, 대인관계에서 충족되는 만족감, 그리고 환경적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신도철(1982)은 삶의 질이란 경험자 자신의 마음속에만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의 개념적 틀의 정립에 필수적인 두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첫째, 삶의 질이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의 성취에서 생기는 물리적 상태이며, 둘째,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생활목표와 가치 중에서 복지와 즐거

움이 대다수 사람들이 생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생활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재구(1986)는 삶의 질이라는 뜻은 인간생활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 즉 인간 삶의 질적 수준과 인간 삶의 가치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인간의 삶과 직접관련이 있는 사회 및 환경의 변화와 개선을 기도하고자 하는 이른바 사회계획의 궁극적 정책목표인 동시에 정책수단이 바로 삶의 질과 삶의 질 지표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삶의 질이란, 곧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얻는 만족감 또는 행복감을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2. 삶의 질 측정방법 : 사회지표

1) 사회지표의 개념

사회지표(Social Indicator)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한 바우어(R. A. Bauer)는 사회지표를 “사회적 가치 및 목표와 관련하여 우리의 현황과 추이를 알게 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통계, 통계체계(statical series)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증거”로서 정의하고 있다(R. A. Bauer, 1966). 미국의 보건교육복지성(U. 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의 사회보고서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사회지표는 사회의 주요국면의 조건에 관한 간결하고 종합적이며 균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직접적·규범적 관심의 통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복지의 직접적인 측정이며,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보다 좋은’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사나 경찰관의 수에 관한 통계는 사회지표가 될 수 없고, 건강에 관한 수치나 범죄율은 사회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1969).

위의 정의들은 가치나 목표 등의 규범적 기준을 전제로 하여 사회적 상태의 현황과 변동을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어떤 지표의 방향이 좋고 나

쁘다는 것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규범적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사회지표의 요건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범적 입장에 대하여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더만(A. D. Biderman, 1972)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상에 관한 지표(index)로서 기여할 수 있는 계량적 자료에 그 정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사회지표의 어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표가 단순한 통계 이상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규범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사회지표를 사회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표체계내에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가 함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셸돈(E. B. Sheldon)과 무어(W. Moore)는 사회지표(A social indicator)는 어떤 규범적 기준에 의하여 진보적이든 퇴보적이든 전체사회 영역의 일국면의 현재상태 또는 과거 및 미래의 경향에 관한 해석을 주는 것이라 하였다(E. B. Shidon & Moore., 1968). 모이니한(D. P. Moynihan)은 객관적 제문제에 대한 양적 측정·질적 평가를 혼합시킬 때, 그것이 사회지표라고 정의하였다(안병영 외, 1980 : 재인용).

학자마다 관점이 상이하고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지표의 정의는 다양하며, 사회회계(social accounting), 사회보고(social reporting), 사회정보(social information) 등의 사회지표와 유사한 용어들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영섭, 1975). 문헌상에 나타난 관련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사회지표의 개념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주학중, 1981).

첫째, 사회지표는 사회적 제반조건의 상태를 나타내는 통계 또는 통계체계 및 기타 형태의 자료로서 이루어진 체계적인 정보이다.

둘째, 사회지표는 가급적이면 투입보다는 산출과 관련되어야 하지만, 산출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나 의미 있는 정책적 변수와 관련될 경우에는 투입을 측정할 수도 있다. 그 예로서 건강은 산출의 지표이나 투입인 의료자원의 지표로써 이를 산출의 대변수(proxy)로 삼을 수 있다.

셋째, 사회지표는 일반적인 복지와 사회적 관심 또는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집성한 측정치라야 한다. 환언하면 사회지표는 특정한 부문의 정보가 아니라 종합적인 정보라야 한다.

넷째, 사회지표는 시차적 변화 및 계층적 차이를 파악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지표에 있어서 규범성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치판단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고, 특히 사회지표의 사회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 및 목표와 연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회지표의 기능

사회지표의 기능에 대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하지만, 랜드(Land)의 논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랜드가 제시한 사회지표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랜드가 제시한 사회지표의 제기능 중 어떤 것을

표 1. 사회지표의 기능

기 능	내 용
사회정착적 기능	① 특정한 정부(공공)정책 평가 ② 국민경제 계정과 유사한 사회계정체계 설정 ③ 사회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수립 기능
사회변동적 기능	① 사회적 조건(상태)를 측정 ② 삶의 질 내지는 인간생활조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여러 경제지표보완 ③ 사회변동(사회적 조건의 변화)을 측정하는 기능
사회보고적 기능	① 사회정보체계개선 ② 장래에 있을 사회 문제와 생활 상채 예측기능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사회지표 체계연구(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재인용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사회지표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즉 사회지표의 정책적 기능을 중요시하는 사회 엔지니어링(social engineering)적 시각과 사회지표의 사회보고(social reporting)적 기능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정책설정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 엔지니어링적 시각에서는 사회지표를 사회정책이 지향하는 변화를 향한 목표 또는 산출(output) 변수로 파악한다. 이러한 정의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사회지표가 특정한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사회계정체계를 발전시키며, 국가목표와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입장은 “사회의 목표”에 대한 동의의 전제로 하며, 개인과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의미 있는 생활의 질에 관한 지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사회적 조건과 변화에 대한 중요 변수를 정의한다는 것은 이러한 조건들을 가져오는 인과적 요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제적 조건을 갖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는 맥레(MacRae, 1985)이며, 미국 보건교육복지성(U. 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또한 사회지표의 정책적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미국 보건교육복지성, 1969).

사회보고의 기능을 강조하는 시각은, 사회지표의 주요 기능은 사회의 중요한 제특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사회적 측정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지표는 사회조건들과 그것들의 각 부분의 시계열적 변화를 나타내는 사회적 인덱스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의는 객관적 또는 주관적 안녕이라는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지 않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술적(descriptive)인 사회지표의 발전을 촉진시키게 되며, 따라서 사회지표의 적절한 역할은 계몽이라고 본다. 즉 사회적 조건과 사회변화에 관한 대중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사회지표의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회지표는 실행되는 정책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책의 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

이다. 이러한 시각을 견지한 대표적인 학자는 비더만(Biderman), 무어와 셸돈(Moore and Sheldon) 등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한편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시각을 종합하여 사회지표의 기능으로서 ①국민생활의 수준측정, ② 사회상태의 종합적인 측정, ③사회변화의 예측, ④사회개발정책의 성과측정 등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강동식, 1991).

3) 우리나라의 사회지표

우리나라에서 사회지표에 관한 연구활동이 시작된 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사회보장심의회가 설립되어 사회개발장기계획안을 입안했던 1970년대 전후이다. 당시에는 정부에 의해서 그 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했으나, 1975년 10월부터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UN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의 지원으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공동연구가 시작되면서, 1978년 정부에 의해 「사회지표시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1979년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8개 부문(인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보건, 주택·환경, 사회, 공안)에서 128개의 지표로 하여 최초로 공표하게 되었다(통계청, 2000).

이후, 점차 지표가 확대되어 1987년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사회지표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사회지표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지표를 9개 부문으로 확대하고(문화·여가부문 추가) 총 463개의 지표를 새롭게 체계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88년에는 243개 지표를 작성하였으며, 1995년에는 13개 부문(인구, 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교통, 정보통신, 환경, 복지, 문화·여가, 안전, 사회참여) 총 553개 지표를 새로이 체계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0).

이외에도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 「한국의 교육지표」, 청소년개발원에서 발간하는 「청소년 지표」, 소비자 보호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소비자지표」, 여성개발원에서 발간하는 「여성과 관련한 통계·지표」등이 그것들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의 사회지표가 공표되고 있다.

4)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지표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통계들은 「한국통계연간」, 「농림통계연보」, 「농가경제조사연보」, 「농업총조사」, 「한국의 사회지표」등에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사회지표」에 삶의 질과 관련된 가장 다양한 통계자료가 있으며, 특히 몇 분야에서는 도·농간의 비교가 가능한 자료들이 있다.

III.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 양상

1. 소득의 변화

삶의 질은 경제, 문화, 교육, 보건의료 등 인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경제환경, 그 중에서도 소득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농촌주민의 소득수준 변화 양상을 연도별로 파악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도시민의 소득수준과 비교해 보면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양상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표 2에는 농가와 도시가구의 소득이 제시되어 있다. 1990년 이전에는 농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가구의 월평균소득을 앞지르기도 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가의 소득수준이 도시의 그것에 비해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1999년대는 농가의 소득수준이 도시가구의 소득에 84%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1990년대의 연평균 소득증가율도 크게 둔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농촌의 경제여건이 도시에 비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농가의 경제여건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는 나빠졌는지는 농가부채의 변화와 구성비를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1990년에는 농가 가구당 4,734천원의 부채가 있었으나, 2000년에는 4.3배가 증가한 20,207천원이 되었다. 특히 1995-2000년에는 연평균 부채증가율이 17.1%에 이를 정도로 농가의 부채가 급증하였다. 1995년에는 부채 가운데 가계성 자금이 12.1%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0년에는 19.2%를 차지하였다(표 3). 이는 농업생산을 위한 건전한 부채가 감소하고 소비를 위한 악성 부채가 증가함을

표 2. 농촌·도시가구의 소득비교

연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A)	농가월평균소득(B)	B/A(%)	농가월평균소득 증감율(%)
1970	28,180	21,317	75.6	
1975	65,540	72,744	1110.0	
1980	234,086	224,426	95.9	1970~80 : 26.5
1985	423,788	478,021	112.8	1980~90 : 15.1
1990	943,272	918,815	97.4	1990~99 : 8.2
1995	1,911,064	1,816,880	95.1	1970~1999 : 16.7
1999	2,224,743	1,860,246	83.6	

자료 :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2000). 농가경제조사.

표 3. 농가 가구당 농가부채

구분	1990	1995	2000	연평균 증가율
1970	28,180	21,317	75.6	
농가부채(천원)	4,734	9,163	20,207	
생산성자금(%)	66.5	80.0	75.0	1990~2000 : 15.6
가계성자금(%)	21.4	12.1	19.2	1995~2000 : 17.1
채무상환용(%)	12.1	7.9	5.8	

자료 : 통계청(2001). 농가경제통계.

의미한다. 즉 농가의 경제 상태가 악화되고 삶의 질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쌀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오히려 2004년 이후 쌀시장의 개방 확대에 쌀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의 경우도 수입확대와 수요의 안정으로 가격상승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면 농업소득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농가소득을 늘려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농가소득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이거나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970년에는 농외소득의 비율이 24.2%, 1980년에는 34.8%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에는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을 합한 비율이 43%에 이르렀고 2000년에는 농가소득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의 비율이 13%에 지나지 않는다(표 4).

2. 노동 환경의 변화

농가의 노동환경 변화를 비농가와 비교하여 살펴

표 4. 농가소득 구성비

구 분	단위 :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농가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업소득	75.8	81.9	65.2	64.4	56.8	48.0	47.2
농외소득	24.2	18.1	34.8	18.5	25.8	31.8	32.2
이전수입*	-	-	-	17.1	17.4	20.2	20.6

* 이전수입에 관한 통계는 1983년 이후 작성됨

자료 : 통계청(2001), 농가경제통계.

표 5. 농가와 비농가의 경제활동 상태

구 분	단위 : 천명, %					
	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고령자 취업률(55세 이상)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1978	65.8	56.5	0.8	4.7	-	-
1980	65.4	55.9	1.1	7.5	19.3	5.7
1985	62.5	54.9	1.1	4.9	24.3	6.8
1990	68.0	58.4	0.6	2.9	35.9	8.3
1995	72.2	60.6	0.5	2.2	46.5	10.1
1999	73.4	59.1	1.4	6.9	53.0	11.4

자료 :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지표.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농가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78년에 65.8%이었으며 1999년에는 73.4%이었다. 농가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농업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라기 보다는 농촌 인구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른 상대적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농가에 비해 농가의 실업율이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고령자 취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표 6의 통계에서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50대 이상이 농업부문 종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에는 다른 산업부문에서는 은퇴할 연령층인 60세 이상의 비율이 40%를 점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사회적으로 은퇴했을 고령의 농업노동력이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부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경제활동 참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와 은퇴의 지연은 농업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져 농업발전의 걸림돌로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농촌의 교육환경 변화

산업화와 더불어 경제상태가 호전되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진 결과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로 증가하여 각급학교의 진학률이 높아졌다. 농촌지역의 경우 중학교 교육이 199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의무교육화 되었고 이제는 고등학교 진학률도 95%를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열은 크게 높아졌으나 농촌의 취학기회는 향상되지 않고 있다. 농촌지역 초등학교의 학교수는 1개 면당 평균 3.2개교이며 중학교는 대개 1개 면에 1개교가 설치되어 있다. 농촌의 마을에서 학교까지의 평균거리는 초등학교가 1.8km, 중학교가 10.7km, 고등학교가 11.2km로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같은 군내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취학이혼을 해야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198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대도시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 농촌주민들의 접근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김수옥, 1994).

농촌의 교육환경은 도시에 비해 열악하지만 농촌

주민들은 오히려 도시민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여 왔다. 표 7를 보면 농촌주민들의 총 가계비에 대한 교육비 부담률은 지난 20년간 10%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도시민들의 경우는 1999년에 들어서 교육비 비율이 1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농가의 교육비 부채비율은 지난 20년간 20%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최근 농가부채가 크게 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농가의 교육비 부채액도 크게 늘어나 농가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을 보면 농촌은 학교납입금과 유학비의 부담이 도시에 비해 큰 반면 도시는 각종 사교육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주민들은 농촌주민들에 비해 각종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높아 도시는 농촌에 비해 정규교육환경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환경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주민들은 도시주민에 비해 경제적 형편과 부모의 전통적이고 고루한 사고방식 때문에 교육기회를 충족시킬 기회를 상대적으로 덜 갖고 있다. 즉 농촌의 교육의 질이 도시에 비해 낮음은 여러 교육지표를 통해 확인된다.

표 6. 연령별 농림어업 취업자구성

단위 : 천명, %

연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1970	639(13.2)	894(18.4)	1,260(26.0)	1,058(21.8)	686(14.2)	309(6.6)	4,846(100)
1975	616(11.5)	943(17.7)	1,177(22.0)	1,180(22.1)	962(18.0)	461(8.6)	5,339(100)
1980	229(4.9)	720(15.5)	898(19.3)	1,309(28.1)	979(21.0)	520(11.2)	4,654(100)
1985	69(1.8)	499(13.4)	681(18.2)	997(26.7)	924(24.8)	564(15.1)	3,733(100)
1991	57(1.7)	367(11.0)	461(13.8)	645(19.3)	1,070(31.9)	749(22.4)	3,347(100)
1995	27(1.0)	294(10.5)	369(13.2)	500(17.9)	721(25.8)	884(31.6)	2,795(100)
2000	20(10.8)	237(9.5)	252(10.1)	421(16.8)	576(23.0)	996(39.8)	2,502(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표 7. 농촌과 도시의 교육비 부담

단위 : 원, %

구 분	교육비		교육비비율		농가의 교육비 부채율 (교육비부채/가계비부채)
	농촌	도시	농촌	도시	
1980	200,283	125,676	9.5	5.8	17.2
1985	555,338	279,960	11.8	7.4	20.4
1990	683,436	664,704	10.5	8.1	20.6
1995	1,553,337	1,484,004	10.5	9.8	20.8
1999	1,652,714	1,921,704	9.7	10.8	19.3

자료 :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2000), 농가경제조사.

4.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산업화가 진행되는 동안 농촌의 이농이 계속되면서 인구가 계속 감소해 왔고 도시지역이 확대되면서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력들이 도시로 편재되는 현상을 보여 도·농간 보건·의료환경의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농촌의 인구과소화로 의료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임계인구(threshold population)를 확보하기 어려워

농촌의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의 확충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농촌의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는 늘고 있으나 증가추세가 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다.

1997년 현재 농촌지역에는 전체 의료기관의 10%가 있으며, 의료인력은 전체의 6%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1986년만 해도 농촌의 의료인력은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였고 의료시설은 전체의 16%를

표 8. 교육관련 지표

단위 : %

지표	항목	농촌	도시
교육비 부담요인('96)	학교납입금	38.6	28.6
	각종과외비	46.7	66.5
	교재비	4.1	1.8
	유학비	8.6	2.32
	기타	2.0	0.8
평생교육 참여비율('96)	참여자비율	13.1	18.5
	직장연수	4.8	10.2
	학원수강	1.1	4.1
	교양강좌	2.1	3.4
	직업훈련	5.5	1.4
	TV/라디오 강좌	1.7	4.4
교육기회의 미충족 이유('96)	경제적 형편	51.7	46.3
	학교가 멀어서	2.4	1.0
	시험실패	9.3	13.3
	부모의 사고방식	15.6	10.3
	집안돌봄	5.4	5.0
	질병/신체적 장애	1.0	0.7
	기타	0.8	0.8

자료 :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지표.

표 9. 의료기관 분포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계(A)		농촌(B)		도시		B/A	
	1986	1997	1986	1997	1986	1997	1986	1997
종합병원	183	262	20	16	163	246	10.0	6.0
병원	331	505	66	97	265	408	19.0	19.0
치과병·의원	2,999	9,243	307	770	2,692	8,473	10.0	8.0
한방병·의원	2,790	6,446	407	594	2,383	5,852	14.0	9.0
의원	8,069	15,876	1,234	1,550	6,835	14,326	15.0	9.0
부설의원	279	220	49	9	230	211	17.0	4.0
조산원	504	148	81	14	423	134	16.0	9.0

자료 : 보건복지부(1987: 1998).

차지하고 있었다(표 9, 표 10).

1994년 의사 1인당 담당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농어촌은 4,507명인데 도시지역은 1,018명으로 4.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7년에는 4.9배로 도·농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의사수는 다소 증가하여 의사 1인당 담당인구수는 3,806명으로 1994년에 비해 약간 줄어들었다. 농촌지역의 치과 의사와 한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1997년 현재 치과 의사의 1인당 담당인구수는 11,491명, 한의사는 15,718명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거의 증가하

지 않아 담당인구수의 도·농간 격차가 매우 커졌다.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는 의료환경의 질을 가름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므로 표 11은 농촌의료환경의 질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의료비 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표 12은 가계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1970년대에는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의료비가 3~4%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6.7% 수준으로, 2000년에는 7.3%로 크

표 10. 의료인력 분포 현황

자료 : 명, %

구 분	계(A)		농촌(B)		도시		B/A	
	1986	1997	1986	1997	1986	1997	1986	1997
의사	20,587	47,321	1,863	2,515	18,724	44,806	9.0	5.0
치과 의사	3,826	11,464	360	833	3,466	10,631	9.0	7.0
한의사	2,919	7,364	411	609	2,508	6,755	14.0	8.0
조산사	1,382	1,176	141	35	1,241	1,141	10.0	2.0
간호사	18,184	51,456	958	2,203	17,226	49,253	5.0	4.0
약사	1,523	3,009	86	116	1,437	2,893	5.0	3.0
의료기사	7,650	30,565	682	2,607	6,968	27,958	8.0	8.0
간호조무사	34,697	64,841	4,264	6,003	30,433	58,838	12.0	9.0

자료 : 보건복지부(1987; 1998).

표 11.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단위 : 명

지역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농촌 (A)	4,507	3,806	16,858	11,491	23,344	15,718	4,154	4,345
도시 (B)	1,018	782	4,622	3,296	6,756	5,187	937	711
A / B	4.4	4.9	3.6	3.5	3.5	3.0	4.4	6.1

통계청(2000). 농가경제조사.

표 12. 농가의 의료비 부담

단위 : 원, %

연도	가계비(A)	의료비(B)	의료비비율(B/A)
1970	207,776	6,966	3.4
1975	616,280	23,101	3.7
1980	2,138,323	95,895	4.5
1985	4,690,854	246,098	5.2
1990	8,227,213	507,447	6.2
1995	14,781,890	1,000,519	6.8
2000	18,003,433	1,318,75	7.3

통계청(2000). 농가경제조사.

게 증가하였다. 즉, 농촌의 의료환경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나 의료비 부담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농촌주민들이 느끼는 건강상태도 점차 나빠지고 있다(표 13). 1995년에는 건강하다고 느끼는 농촌주민들의 비율이 도시민에 비해 다소 높았고, 건강치 못하다고 느끼는 농촌주민들의 비율도 도시민에 비해 다소 높았다. 그러나 1999년에는 건강하다고 느끼는 농촌주민들의 비율이 도시민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건강치 못하다고 느끼는 비율의 격차도 커졌다. 즉, 농촌주민들이 건강상태가 날이 갈수록 도시민에 비해 나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생활환경의 변화

농가소득의 증대, 농촌경제여건의 변화,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농촌정주생활권 개발, 기타 정부주도의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농촌의 생활환경은 크게 변화하여 왔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공해의 증가, 범죄의 증가, 인심의 변화 등 부정적인 변화도 수반되었다. 표 14은 농촌주민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불만이유의 변화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1997년에는 1992년에 비해 교통사정에 대한 불만족도와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에 의한 주변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공해와 편익시설에 대한 불만족도는 크게 낮아졌다.

표 15는 도시와 농촌의 주택형태별 가구분포를 조사한 결과이다. 1970년에는 도시와 농촌의 아파트 보급률이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1995년에는 도시의 경우 아파트 보급률이 32%에 이르고 있다. 농촌지역의 아파트 공급은 1990년대에 활발하여 1990년에 아파트 보급률은 3%에 지나지 않았으나 불과 5년 후인 1995년에는 10% 수준에 이르렀다.

앞으로 농촌주민들도 일상 생활에 편리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지역 주택시설의 현대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농촌의 주거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표 13. 개인의 건강평가

단위 : %

연도	지역	건강상태				
		매우양호함	건강한 편	보통	건강치 못함	매우 나쁨
1995	도시	5.9	36.9	38.9	16.4	1.9
	농촌	6.7	40.1	29.5	20.7	3.0
1999	도시	6.1	36.8	39.2	15.5	2.5
	농촌	5.9	36.1	31.9	22.3	3.8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지표.

표 14. 농촌주민의 거주지역에 대한 불만의 이유

단위 : %

불만이유	연도	
	1992	1997
교육여건	13.7	13.3
교통사정	32.6	39.8
주변환경	4.0	12.0
공해	13.6	2.7
편익시설	33.3	25.2
범죄	0.6	0.4
주차시설	-	2.4
물가	-	2.7
기타	2.1	1.3

자료 :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지표.

있다(표 16). 입식 부엌시설과 온수 목욕시설은 1990~1995년 사이에 급속히 향상되어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다만 도시에 비해 농촌의 수세식 화장실의 비율이 낮아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은 여성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힘든 가사노동을 줄이고, 가사노동시간을 단축하여 농촌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표 17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직도 격차가 큰 실정이다. 농촌주민들은 주요 음용수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 농촌의 하수도 보급률은 극히 미미하여 생활하수의 방류로 인한 농촌환경오염의 악화가 우려된다.

경제발전예 따라 도·농간의 생활의 질이 다소 개선된 점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 생활편익시설인 상하수도 시설의 격차, 그리고 보건위생에 가장 중요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의 사용 등에서 나타나는 격차는 아직도 농촌의 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문화활동을 하거나 즐길 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여가를 선용할 기회가 부족하다.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 18과 같이 도·농간의 교양오락비를 비교하여 문화생활의 질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1980년에는 도·농간에 교양오락비의 절대적 액수와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도·농간의 교양오락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가계비에서 교양오락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농촌은 경제상태인데 비해 도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농촌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교양오락비 지출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농촌의 노령화로 인해 교양오락비 지출 증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농촌의 문화환경, 여가공간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6. 도·농간의 정보격차

21세기를 흔히 '디지털 시대' 또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이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과 이용이 생

표 15. 주택형태별 가구분포

단위 : 원, %

연도	지역	단독주택	아파트	기타
1970	도시	91.4	1.6	7.0
	농촌	97.8	0.1	2.1
1980	도시	84.4	8.0	7.6
	농촌	97.0	0.6	2.4
1990	도시	69.4	18.9	11.7
	농촌	92.4	3.0	4.6
1995	도시	53.5	31.9	15.6
	농촌	81.4	10.0	8.6

자료 :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지표.

표 16. 도·농간 주택시설 비교

단위 : %

구분		부엌시설			목욕시설			화장실		
		재래식	입식	없음	온수	비온수	없음	재래식	수세식	없음
농촌	1990	71.7	28.1	0.2	14.2	6.9	78.9	85.6	14.0	0.3
	1995	25.7	74.0	0.3	60.7	6.4	32.9	55.8	43.8	0.4
도시	1990	38.4	60.7	0.9	40.9	11.0	48.1	35.5	64.0	0.5
	1995	12.1	87.1	0.8	78.9	2.2	18.9	15.2	84.2	0.6

자료 :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지표.

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 경제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를 말한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신속하고 편리한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이나 산업의 발전을 물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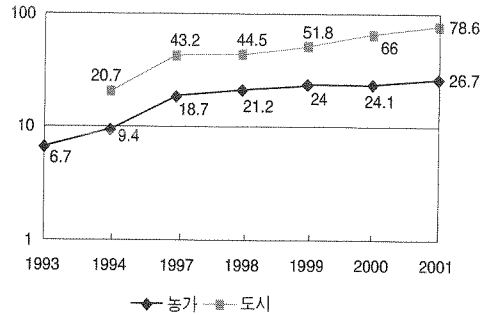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고, 노령화되었고, 교육수준이 낮고,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나 이용능력에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지식정보화 시대가 진행될수록 도·농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지역의 불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따라서 농촌인구의 유출을 촉진하고, 농촌산업의 정체 그리고 주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농촌과 도시의 정보격차를 확인하고 그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PC보급과 컴퓨터 이용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PC 보급률 변화추세를 보기 위해 통계청에서 조사

한 농가의 PC 보급률과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조사한 전체 가구의 PC보급률을 비교하였다(그림 1).

농가의 PC 보급률은 1994년 9.4%에서 2001년



주 : 2000년과 2001년의 농가 PC보급률은 통계청자료임
 자료 : 농림부(2000). ; 한국정보문화센터 (2001).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2001). ; 통계청 사회통계과 (2001).

그림 1. 가구의 PC 보급률 변화 추세

표 17. 상하수도시설 및 음용식수

단위 : %

지표		농촌	도시
상수도보급률('95)		34.4	92.1
하수도보급률('95)		3.4	37.5
음용식수('97)	수돗물	32.3	70.7
	약수	5.3	9.38
	지하수	56.1	9.3
	생수	2.1	10.0
	기타	4.2	0.2

자료 :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지표.

표 18. 도·농간 교양오락비 비교

단위 : %

구분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 비율	
	농촌	도시	농촌	도시
1980	35,755	39,420	1.7	1.8
1985	41,222	134,148	0.9	3.5
1990	54,515	386,412	0.7	4.7
1995	126,689	802,176	0.9	5.3
1999	121,304	862,200	0.7	4.9

자료 :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지표.

26.7%로 7년 동안 17.3% 증가하였으나, 전체 가구의 PC보급률은 같은 기간 20.7%에서 78.6%로 57.9%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즉 전체 가구의 PC 보급률과 농가의 PC 보급률 차이를 보면 1994년의 농가와 전체 가구의 PC 보급률 격차는 11.3% 였으나 2001년 현재의 PC 보급률 격차는 51.9%로 확대되었다.

특히 농업인의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가능 비율은 각각 11.2%와 8.3%로 전국의 58.7%와 52.9%와 비교할 때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농업인들의 정보화 교육 비율은 2.7%에 지나지 않아 전국의 10.4%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즉 농업인들은 전국 수준에 비추어 정보화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표 19).

IV.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개발의 방향

1. 농가소득의 증대

농가소득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농가소득은 1980년대까지는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에 못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는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정체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저소득 농민층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값싼 해외 농산물 수입의 확대로 농업성장과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실질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쌀 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가격하락과 쌀 농사의 감소로 농업소득을 올릴 기회는 더욱 제약될 수 있다.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곡대신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물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재

배기술교육에 주력해야 한다. 청정채소류, 약초류, 건강식품, 원료작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대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가격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을 올려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의 증가로 농가소득을 보전할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경제 및 국가경제 여건의 호전과 농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농외취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농촌에 입지 가능한 산업부문을 적극 이전하도록 하고, 영세소농층의 전업훈련을 지원하여 농외취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토요휴무제와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로 겸업소득과 농외사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의 생태환경과 경관을 정비하고, 휴양 및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생태학습장, 휴양관광지, 농업체험교실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폐교를 정비하여 도시학생과 도시직업인을 위한 야외학습장, 교환학교, 수련장 등으로 활용하면 농촌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민이 여러 목적으로 농촌을 자주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농산물 생산지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농업소득의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논농업직불제의 확대, 작물보험제도 시행, 전직보상제의 도입, 친환경농업 보상제도 등으로 이전소득도 크게 늘려 농가소득을 보전해야 한다. 국가경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촌지역거주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표 19. 농업인의 정보화 실태

단위 : 시간, %

	컴퓨터 사용가능	인터넷 이용가능	인터넷 이용시간 ¹⁾	인터넷 접속 가구	인터넷 거래여부	정보화 교육
농업인	11.2	8.3	7.3	58.5	9.8	2.7
전국	58.7	52.9	10.2	74.1	15.3	10.4
격차	47.5	44.6	2.9	15.6	5.5	7.7

1)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인터넷 이용자 시간

자료 : 통계청 (2001), 2001년 정보화 실태조사결과.

2. 농촌교육환경의 개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도시민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도·농간 교육환경의 격차는 학력의 격차를 유발하고, 이농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은 단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의 초·중·고등학교 무료급식을 전면 실시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오지 농촌 학생의 취학을 위해서 농촌중심도시의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농촌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신의 정보·통신시설을 구비하여 도시학교와 화상을 통한 교환학습을 실시하고, 대도시의 첨단과학 기자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농촌학생의 학력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농촌의 가정학습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므로 농촌지역에 공공도서관과, 청소년회관을 건립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청소년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농촌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농촌 보건·의료환경의 개선

우리나라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은 교통여건이 좋고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에 90% 이상이 편중되어 있어 농촌의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취약한 농촌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입지하기 힘든 농촌의 오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지원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보건·의료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농촌의 기초의료와 보건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와 진료기능을 맡고 있는 민간 병·의원을 하나의 연계

된 지역보건의료망으로 삼아 상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농촌의 인구적 특성과 질병발생의 특성에 따라 노인병과 농부증 등 환경관련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은 농촌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병원이 농촌에 입지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공급적으로 농어촌 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력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특례입학제도를 활용하여 농촌의 건실한 청소년을 농촌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으로 의학계 대학에 입학하게 하고, 지방의 장학금으로 공부시켜 졸업 후 고향의 의료계에서 의무적으로 봉사하게 하는 '고향의사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4. 농촌생활환경의 개선

농촌지역을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인간정주의 장(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의 개선과 정비가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편리한 주거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주민의 수요에 부응하여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단독주택들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정주생활권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주거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상하수도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최근 농촌환경도 점차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의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수도시설을 정비하여 농촌환경의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힘써야 한다. 농촌지역에도 쓰레기 처리장 등 환경관리시설이 마련되어야 농촌주민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될 것이다.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문화시설과 여가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

사회의 노령화현상에 부응하여 농촌노인을 위한 문화시설과 위락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의 문화회관 등에서는 농촌주민을 위한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문화행사를 자주 펼치고, 농촌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 육성하는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5. 농촌의 정보격차 해소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가의 PC보급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PC보내기운동을 활성화 하고, 농촌의 PC수리비용을 지원하고, PC보내기운동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다.

농촌주민들의 컴퓨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내의 각종 교육시설과 장비, 인력을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컴퓨터 교육을 상설화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피교육자의 교육수요에 기초한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세민이나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통신요금 인하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농업인들의 새로운 정보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지원, 농산문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지원, 농업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V. 결론

산업화 기간에 농촌은 도시에 비해 소득을 올릴 기회가 적었으며, 생활환경의 개선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등 발전속도가 늦었으며, 따라서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떠나게 되었다. 이농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로 각종 공공시설과 편익시설들은 임계인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점차 줄어들거나, 제 기능을 못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지거나 정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농촌을 인간정주의 장으로 만들어 도·농간의 균형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한 적극적인 농촌개발의 시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촌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농업경영만으로는 농업소득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다양한 맛을 지닌 고급 채소류, 건강식품 원료작물, 약초류 등 새롭고 다양한 현금작물(cash crop)등을 적극 개발하여 농업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농업소득에 못지 않게 농외소득의 증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농촌 어메니티(amenity)를 이용한 농외사업은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통한 농가소득의 보전도 요청된다.

둘째, 농촌환경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줄이고, 농촌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초·중·고 학생들의 유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농촌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의료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농촌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의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농촌지역에서 평생동안 봉사할 지역의료진의 육성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농촌의료전달체계도 개선되어야 하며 농촌주민을 위한 노인병 전문병원, 농부병 전문병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넷째, 농촌생활환경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농촌주거환경의 개선, 농촌환경오염 방지시설, 농촌문화시설 및 여가공간이 정비, 확충되어야 한다. 농촌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되살리는 일도 농촌개발의 주요 과제이다.

다섯째, 도·농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의 PC보급을 지원하고,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의 정보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참고 문헌

1. 강동식(1991), 삶의 질 지표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 33집.

2. 경제기획원(1996), 한국의 사회지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3. 김동원 외(2001), 2000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 결과, 농촌경제, 제 24권, 제 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김수옥 외(1991), 전환기의 한국농촌사회·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농업·농촌문제의 종합적 대응 방안. 한국농업과학협회.
5. 김수옥(1994), 한국과 일본의 농촌, 범문사.
6. 김수옥(1995), 농촌주민의 기초수요 조사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 2권, 제 1호,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 김영섭(1975), 사회개발의 정책수단으로서의 개발지표에 관한 연구, 환경논총, 제 2권, 제 1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 김영섭(1982), 사회개발계획론, 서울, 범문사.
9. 박대식 외(1997), 농촌 복지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송병국(1987), 농촌성인의 생활 만족도와 그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송정기 외(2000), IMF 경제 위기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 대산논총, 제 8집, 대산농촌문화재단.
12. 신도철(1982), 한국인의 삶의 질 대연구, 정경문화, 서울 : 경향신문사.
13. 안병영 외(1980), 발전행정론, 범문사.
14. 오내원 외(2001), 농의소득의 실태와 정책방향, 농촌경제, 제 24 권, 제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 유종해(1990), 사회지표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 21집, 연수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6. 윤종주 외(1990), 소비생활지표의 체계개발을 위한 연구.
17. 이동필 외(2001), 농촌지역의 정보화 실태와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 이회경(1982), 농촌공업화가 주민의 의식구조에 미치는 영향, 농촌경제, 제 5권, 제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정명채 외(1999), 농어촌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 조남훈 외(1994), 한국의 사회지표체계개편연구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 주학중(1981), 사회지표의 체계와 활용,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2. 최경현(1986), 사회지표의 체계화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최경환 외(1997),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과 농업인 복지증진, 농촌경제, 제 20권, 제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 지표, 통계청.
25. 통계청(2001), 농가경제통계, 통계청.
26. 하성재(1993), 도시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하재구(1986),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의 실태와 시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2), 농업전망 20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9. 한국농촌사회학회(1992), 한국의 농민의식과 농촌사회의 전망, 한국농촌사회학회.
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 한국심리학회(1995), 삶의 질의 심리학, 춘계심포지움 보고서, 한국심리학회.
32. 한혜경(1979), 농가의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 현오석(1976), 생활의 질 측정에 관한연구, 행정논총, 제 14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34. Albert D. Biderman(1972), Social Indicators and Goals, Raymond Baure(eds), Social Indicators, Camridge:MIT Press.
35. E. B., Shldon and W. E., Moore(eds.), Indicators of Social Change, New York : Russel Sage Foundation.
36. Liu, Ben-Chieh(1976), Quality of Life Indicators

- in U. S, Metropolitan Area -A Statistical Analysis-, N.Y : Preager.
37. R. A. Bauer(1966), Detection and Anticipation of Impact : The Nature of the Task. in R. A. Bauer(ed), Social Indicators, Cambridge : MIT Press.
38. U. 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1969), Toward a Social Preport,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